2025.6.30.

질병관리청

칸디다 오리스(*C. auris*)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

접촉주의

항목	내용
손 위생	알코올 손소독제 사용, **눈에 보이는 오염**(체액, 분변 등) **은 물과 비누로 손씻기, 장갑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 시행, 손의 모든 면을 문지르며 접촉 시간 준수**
개인보호구	접촉 주의에 따라 **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 상황별 보호구 착용,** 필요시 항생제 내성균 관리 지침의 강화된 기준 적용
물품관리	가능한 **환자 전용 또는 일회용 물품 사용,** 공용물품은 사용 후 **세척 및 소독 실시**
격리표식	**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경고(Alert) 시스템에 따라 시행**

환경관리

항목	내용
특성	**칸디다 오리스(*C. auris*)**는 **장기간** 침대 난간, 환자 테이블 등 자주 **접촉하는 표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멀리 떨어진 표면에서도 분리될 수 있음**
소독제	**차아염소산나트륨 계열** (예, 1,000ppm 희석 락스) 또는 **과산화수소수 티슈** 등 사용 * 4급 암모늄 화합물(QACs) 단독 사용은 효과 없음
소독 주기	하루 1회 이상 **주기적 청소와 소독을 시행**하고, 눈에 보이는 오염 발생 시 **즉시 추가 소독 시행**
퇴원 병상	**환자 퇴실 후 병실의 모든 표면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** 시행

격리방법

항목	내용
원칙	**임상검체(귀 검체 제외) 에서 균 분리된 경우, 가능하면 1인실 격리 권고** - **병실 부족 시 전파 위험이 큰 환자* 우선 배정, 내성 유형별로 코호트 격리도 가능** * 설사, 창상 배액, 요/변실금,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 배출 환자 등 - 격리병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, **물리적 차단막 설치하고 접촉 최소화**
격리기간	**입원기간 동안 격리(강화된 접촉주의)를 유지할 것을 권고** - 보균자에 대한 재평가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, 특히 **항진균제 사용 중에는 시행 불필요** - 퇴원은 보균 여부 관계없이 **의료진 판단에 따라 가능**, 다만 전원 시에는 환자 정보 전달 ※ **격리 여부 및 기간은 원내 지침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**

선별검사

항목	내용
채취 부위	**양쪽 겨드랑이와 서혜부**
채취방법	**하나의 면봉을 사용*하여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서혜부 모두 문지름** * 검사 민감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위해 통합 채취 권장

✓ 본 권고안은 의료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